

동구 김넛과 10

당신의 문화력을  
치료하는 병원 김넛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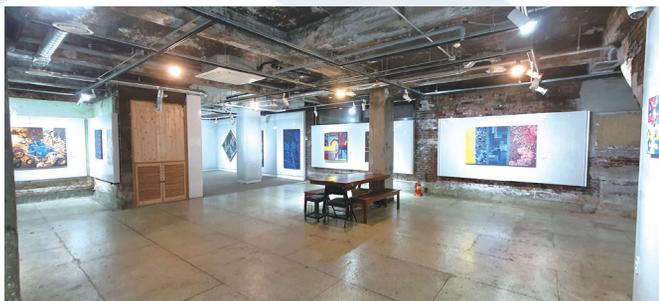
한 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골목이 있었다. 광주를 상징하는 변화가에서 이제는 구도심이 되어버린 대인동의 외진 길목. 1965년 개원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던 '김내과'가 이제는 문화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주의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만나는 복합문화공간 '김넛과'에서 직접 시간을 보내 보았다.



김넛과는 병원 hospital의 어원인 hospitale(손님을 따뜻하게 맞는 주인)의 뜻을 그대로 살린 채 과거의 '김내과'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하여 2017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옛 느낌이 그대로 남은 대인동의 골목에서 파란색으로 도배된 김넛과의 세련된 외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4층으로 된 이곳은 각 층마다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지하는 하우스공연, 갤러리의 용도로 사용되며 1층은 토이, 피규어, 팝아트 전시 및 카페로 이용되고 있다. 2층은 예술도서, 지역작가전시실, 강의, 공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3층은 우수숙박업소로 지정된 반려견 동반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 옥상은 광주의 도심을 감상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까지 열리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여러 문화플랫폼들 중 김넛과가 가진 색다른 매력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이다. 미술, 문학, 음악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 이번 호 마실가자에는 동구 지역 문화예술 공간이 소개되었습니다.



김넛과에서는 지하 갤러리를 통해 매월 지역작가의 기획전을 만나거나 각 층의 곳곳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모두는 인증서가 있는 진품으로 즉석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눈으로 즐기는 것뿐 아니라 특별한 작품들을 소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작가에게는 작품 판매를 통한 직접적인 수익을 주기도 하고 방문자에게는 부담 없는 구경과 구매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작은 도서관에는 1,250권 이상의 다양한 서적이 있으며 인문학 강의도 마련되어 문학적인 요소를 만날 수 있다. 또 음악적 요소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9시 30분에 열리는 문화공연 'ART콘서트'가 펼쳐진다.

개인적으로 김넛과를 즐기는 방법을 제안하자면 당신이 어느 날 심심함이 도를 넘어서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김넛과에 전화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한 다음 대인시장에 둘러 맛있는 음식을 두 손 가득 들고 숙소에 입실한다. 간단하게 짐을 풀고 1층 카페에서 주문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느긋한 걸음으로 지하 갤러리 작품들과 1층에 전시된 그림들을 둘러본다. 작품 하나에 커피 한 모금씩 음미하고는 2층으로 올라간다. 시간이 맞다면 당신은 'ART콘서트'를 즐길 수도 있고, 비치된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배가 출출하다 싶을 때 대인시장에서 산 음식을 들고(술이 있다면 금상첨화) 옥상으로 올라가 자리 잡는다.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작게 틀고 도시 풍경과 하늘을 즐기며 식사를 마친다. 당신이 혼자이든 혹은 누군가와 함께하든, 김넛과에서라면 당신은 잊지 못할 문화치료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김넛과는 단순히 문화향유 공간만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지역작가, 청년작가, 기획자를 지원하며 문화예술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모든 것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주인공의 애정과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이 향유자에게 물질적 가치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김넛과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식당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예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오늘 날,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차림상을 준비하는 김넛과의 주인공 또한 훌륭한 예술가라고.

주소 :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13  
운영시간 : 카페 \_ 매일 10:30~19:00 | 갤러리 \_ 월-토 11:00~18:00 / 일 11:00~15:00

박준성 프리랜서 작가 | skve1@daum.net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불가능한 김수성에 도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다.